‘한국불교 중흥조’ 널리 알린다

경허스님 열반100주년사업회 ‘출범’

한국불교의 중흥조 경허스님(1846~1912)의 열반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2년, 경허스님의 수행과 삶을 선양하는 다채로운 기념사업이 펼쳐진다. 경허선사열반100주년기념사업회(추진위원장 지운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는 지난 12월29일 조계사 인근 두산위브에 사업회 사무실을 마련해 현판식을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덕숭문중 중심으로 꾸려진 기념사업회는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다례(6월) △경허집 재출간 및 경허평전 출간(5월 중순) △경허학술세미나(10월) △경허스님 선서화전(3월) △국제선수행체험(6월) △경허스님 다큐멘터리 제작 △경허스님 사상 백고좌법회(3월~7월) △경허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선문화기행(3월부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다례는 오는 6월 조계사 대웅전에서 경허스님과 인연이 있는 범 경허문도들과 전국의 수좌 스님, 불자들이 모여 전국 규모의 다례재로 봉행된다. 그동안 수덕사에서 발간한 경허집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사업회는 수덕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월정사본, 통도사본 등 기본 경허집을 비교·통합하고 각종 오탈자와 문제점을 수정해서 경허집을 재발간할 계획이다. 경허평전도 발간된다. 경허스님에 대한 무애행과 기행에 치우친 편견과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선종의 대종장이자 한국불교의 중흥조로서 위상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현장탐방과 다양한 채록을 통해 새롭게 재조명할 예정이다.

경허평전 출간·세미나 개최
선서화전 등 선양사업 ‘다채’

한국불교의 중흥조 경허스님의 열반 1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사업이 펼쳐진다. 사진은 경허스님 진영.

경허학술세미나는 조계종 교육원 주관으로 경허스님의 삶과 사상, 문학세계를 재평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경허스님의 친필본을 비롯한 각종 유물들을 전시하는 선서화전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 화계사에서 경허스님의 간화선 정신을 담은 선수행을 직접 체험하는 국제선수행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각 총림의 방장 스님을 비롯해 원로 스님 등 50여명이 나서는 사상 초유의 경허선 선양법회도 전개된다. 이외에도 경허스님이 주석하고 수행했던 해인사 범어사 월정사 수덕사 개심사 천장사 등을 여행하며 경허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선여행 답사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 지운스님은 “통합종단 50주년을 맞이하여 경허스님의 삶과 사상을 짚어봄으로써 조계종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미있는 불사가 될 것”이라며 “덕숭문중에서 시작하는 선양사업이지만 차후 조계종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정은 기자

“한국 민주화에 크게 공헌한 분”

총무원장 자승스님
故 김근태 고문 ‘조의’

지난 12월30일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2월30일 새벽 별세한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조문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2월30일 오후 1시30분 고(故) 김근태 고문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영정에 헌향하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한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의 민주화에 가장 크게 공헌한 인사를 잃었다”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추모했다. 이어 부인 인재근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들에게 “종단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며 “종단도 슬픔을 함께 하겠다”고 다독였다.

한편 김근태 고문과 민주화운동을 함께했던 스님들도 애도의 뜻을 밝혔다. 광주 문빈정사 회주 지선스님은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과 함께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지선스님은 현재 담양 용흥사 선원에서 동안거 정진 중이어서 문빈정사 주지 법선스님이 심경을 대신 전했다. 법선스님은 “지선스님은 김근태 선생과 30여년 이상 서로 한번도 다른 길을 걷지 않았다”며 “재야활동을 하며 사회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동지”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 역시 장례기간 중 서울대병원 빈소를 지키며 고인에 대한 예를 표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고 김근태 상임고문은 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을 창립하는 등 사회정의 회복에 앞장섰다. 제15,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열린우리당 의장 등을 역임했다. 이성수 창업섭 기자

월간 ‘불광’ 제2창간 선언

판형 바꾸고 콘텐츠 혁신

불교계 대표적인 월간잡지 〈불광〉이 창간 38년만에 ‘제2창간’을 선언하고 새단장을 했다.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신년호부터 판형, 디자인, 콘텐츠를 전면 혁신하는 리뉴얼을 단행했다.

창간 당시 광덕스님이 “반야사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밝게 하고, 성공과 행복과 발전을 이루어 우리와 사회의 광명화를 추구한다”고 밝힌 창간선언에 담긴 〈불광〉의 정체성은 변함없다. 불광측은 “〈불광〉의 정체성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녹여내, 불자들의 사고와 생활양식, 문화수준을 한차원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불광〉은 우선 판형을 확장했다. 기존 150×210㎜ 크기에서 전면 컬러에 171×248㎜로 옷을 바꿨다. 내용도 강화시켰다. 사회 저명인사들의 불교인연, 학인 스님들의 강원일기, 사회 주요 이슈를 통찰하는 사색의뜰, 전문가들이 고전을 해석하는 고전산책 등 다채롭다.

혜민스님, 자현스님, 지안스님 등 글 잘쓰기로 소문난 스님 필진들도 고정코너에서 연재할 계획이다. 지난 9월호부터 아이패드 전용 버전을 출시하여 어플 ‘Magazine Plus’를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불광〉은 향후 디지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의 동반성장도 계획하고 있다.

아이패드 전용 버전을 출시하고 서비스 하고 있는 월간 ‘불광’.

류지호 〈불광〉 주간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급변한다 해도 〈불광〉은 창간 취지를 올곧게 실천하며 정도(正道)를 가고자 한다”며 “세상에 부처님빛처럼 환한 반야지혜를 전파하고 각 방면의 아름다운 구석구석을 담아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정은 기자

조계종 수해입은 태국에 3차 재난구호단 ‘파견’

조계종이 대홍수를 입은 불교국가 태국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제3차 구호단을 파견했다.

조계종 태국재난구호봉사단(단장 종선스님)은 지난 4일 태국에 도착해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아유타야 등지에서 8일까지 이어지는 3차 구호단 활동은 의료봉사에 집중된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스님을 단장으로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진 등 총 18명으로 결성된 3차 재난구호단은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출정식을 진행했다. 박인탁 기자

행불선원 ‘목금 강좌’ 개설

행불아카데미는 오는 2월2일과 3일부터 목·금반으로 나눠 1년 과정으로 초기불교 명상법에서 참선까지 40회에 걸쳐 강의와 실습을 병행한다. 바쁜 직장인을 위해 인터넷반도 별도로 운영한다.

이외에도 불교입문반(2월3일부터)을 비롯 〈화엄경〉과 〈능엄경〉을 텍스트로 2월2일, 2월8일부터 각각 6개월 과정의 경전강좌가 실시된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뉴욕 불광문화학교, 이지민 양 등 13명에게

대통령자원봉사상 ‘수여’

미국 뉴욕 불광한국문화학교가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학생들에게 대통령자원봉사상을 수여했다.

불광한국문화학교(교장 선문스님)는 지난 1일 보조교사로 활동을 펼친 13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이지민, 이정현, 박소영 양이 금상을, 이의영, 김은석, 박신형, 강민수, 고상아 양 등이 은상을 박정우, 최지행, 이태희, 강경모, 이도경 양 등이 동상을 받았다.

교장 선문스님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수상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불광한국문화학교는 지난해 6월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공식기관으로 등록됐다. 이상은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그 사실을 인정받아 평가를 통해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뉴욕 불광선원이 운영하는 학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역사, 특별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미 정부로부터 정식인가도 받았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본지·아름다운동행 캠페인 성료

방문 및 계좌이체로 약 2천만원

본지와 아름다운동행이 저소득 가정 아동을 돕기 위해 진행한 선재의선물 보내기 캠페인이 성료됐다. 지난 12월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한 이번 캠페인에는 현장 방문 및 계좌 이체 등으로 총 2078만4280원이 모였다. 개인뿐 아니라 서울 미타사, 화계사, 강화 정수사, 구미 대둔사, 창원 길상사 등 전국 사찰과 서린산역 등 기업에서도 참여했다.

조계종 총무원 중앙종무기관 종사자들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저금통에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금 100여만원도 보태져 의미를 더했다. 격려카드, 영양제, 겨울나기 방한용품, 주니어김영사가 후원하는 도서 등이 담긴 선재의선물은 혜명보육원, 은광지역아동센터, 신륵지역아동센터, 속초종합사회복지재단 등 약 20개 기관에 골고루 전달됐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QR코드=후원자 명단